

대구에 가면 앞산이라는 곳이 있다. 그저 눈을 들어 앞을 보면 길게 누운산이 보여 앞산이라고 불렀는데 실상은 대덕산이라는 어엿한 이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구사람들은 세상만사에 유별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무던함이 있는 모양이다. 분지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여름이면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를 보내고 겨울이면 유난히 매서운 추위속에 살아 온 탓일까?

실없이 나서기를 꺼려하고 유순한 듯 하면서도 강하고 까탈스럽기까지 하다가도 한 순간 시원스럽게 매듭을 지을 줄 아는 '경상도 보리 문둥이'의 기묘한 속성을 그들은 자못 소중히 여겨 배짱이 두둑하고 내밀한 구석이 라곤 없다.

동남북이 산으로 싸여 있고 서쪽으로 나가야 쉬엄쉬엄 낙동강에 이르는 대구분지. 동화사, 갓바위를 품고 제법 거칠다는 팔공산이 북쪽을 병풍처럼 가리고 서 있다.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도 산을 타고 넘나드는 일이 없는

대구분지는 그래서 예로부터 타지 사람들이 별로 없기로도 유명하다고 한다.

인구 3백만에 가까운 경북지방의 문화·교육의 중심지, 섬유산업으로 지역경제의 기틀을 다지게 했던 대구.

대한제국협회 대구직할시지회(지회장 권영오)는 철로가 대구의 심장부를 비껴지나가는 북구 칠성동에 자리잡고 있다. 주변에는 칠성시장이라는 대구모 농산물시장이 있어 사시사철 북적대고 분주하다.

그 가운데 한적한 골목 모퉁이를 점하여 1층에는 양금공장을, 2층에는 회의실을 겸한 널찍한 지회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대구지회는 94년 새해를 맞아 올해를 전환의 시대로 가는 기점으로 삼고있다. 91년 김호상 지회장(당시 지부장) 때부터 지회의 저변확대, 강화라는 기치아래 추진해 온 지부(당시 분회) 중심 활동이 지난 2~3년간 자리를 잡아 이제 대구시지회 전체의 심장과 뼈대를 이루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구지회는 91년 전체 7백여 업소중 3백이 채 되지 않던 회원수를 93년 결산하기까지 6백업소 이상으로 끌어 올렸다. 지회전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루 조식이 튼튼하게 단결되어야 한다는 방침과 각 지부장들의 그동안의 노력이 이룬 성과였다.

대구지회는 동구(지부장 지진식) 서구(지부장 정춘원) 남구(지부장 진영신) 북구(지부장 손진유) 수성구(지부장 박동우) 달서구(지부장 김배규) 등 6개 지부를 두고 중구지역을 지회 직할로 관리하고 있다. 지부조직은 자체 이사 감사진을 두고 매월 정기이사회를 열어 업계의 현안을 토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 제반 활동이 그동안 각 지부별로 이루어 졌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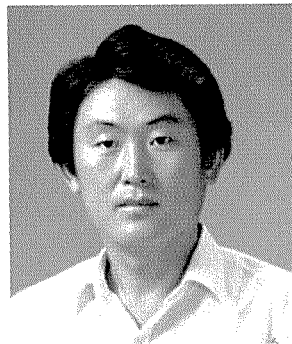
지부 과우회, 지부 산악회, 지부차원의 공동구매사업 등이 대표적인 것이며 이러한 지부별 활동이 지회의 이사회에서 보고, 논의됨

우리가족 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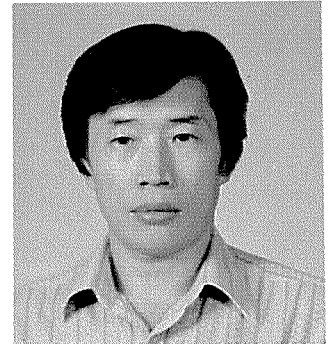
갑술년 새해... 轉換의 원년을 맞는 菓協 대구시 지회



지회장 권영오



달서구지부장 김배규



남구지부장 진영신

으로써 전체 지회가 공히 발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이 되어왔다.

수성구지부 과우회가 몇년전부터 인근고아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연중 수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성금을 전달, 타지부의 모범이 된 경우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 불우이웃돕기 사업은 현재 모든 지부가 숭선수범하여 추진하고 있다.

71년 설립 이래로 지역특성상 주로 대구지역 출신 기술자들에 의해 움직여져 온 대구지회는 한 때 기술이나 정보의 결핍으로 다소 낙후된 점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기술수준도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 각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발전을 위해 애써온 때문일 것이다.

이점에는 특히 '대구제과기술자동우회'의 젊은 회원들의 노력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대구지회의 자랑거리는 무엇보다도 현재 지회건물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한제과양

금' (이사장 김태술). 90년 회원 50여명이 출자하여 재료의 가격안정을 위해 설립한 공장이 4년째를 맞은 요즘 완전히 안정권에 진입했다.

초기에 연관업체들의 견제를 받으며, 한편 기술의 부족으로 숭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사업이 이제는 대구지역 양금가격의 기준이 될 정도로 기반을 닦게된 것이다.

대구지회는 이 양금공장이 결실을 보게 됨에 따라 앞으로 추진할 지회의 재료공동구매에 자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대구지회는 92년 지부장 중심으로 참여하는 '팔공산 산악회'를 결성하여 월 1회 정기산행을 통한 지회의 결속을 다지고 있다. 팔공산 산악회는 회원간 친목을 다지는 지부 활동과는 달리 지부간 교류를 강화하고 지회의 장래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비공식 모임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같이 각 지부에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이를 전체가 공유하기 위해

지회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민주적인 운영의 묘가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대구시지회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과업인들이 모이는 곳이면 형님 아우하는 미덕이야 전국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있지만 대구과업인은 유달리 정이 많다. 다 같은 기술인 출신이기 때문이며 같은 고향을 지키며 살기 때문인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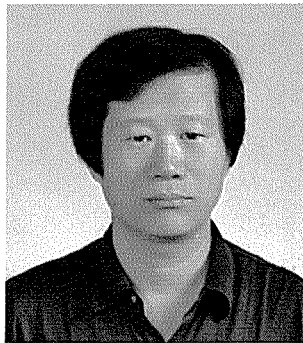
특히 대구는 업주와 종업원(기술자)과의 인간관계 또한 선후배라는 돈독한 끈으로 묶여 있다고 전한다.

94년 대망의 새해 정중동하며 오랫동안 인연의 소중함을 지켜온 대구시지회의 각오가 뜨겁다.  <글·김희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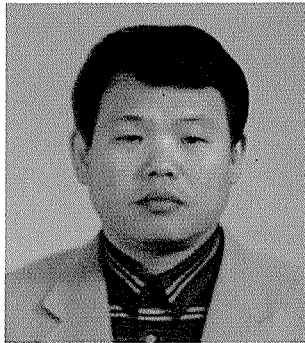
대구지회는 94년 새해를 맞아 올해를 전환의 시대로 가는 기점으로 삼고 있다. 6개 지부의 지부조직은 그 자체 이사 감사진을 두고 매월 정기 이사회를 열어 업계의 현안을 토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각종 사업을 벌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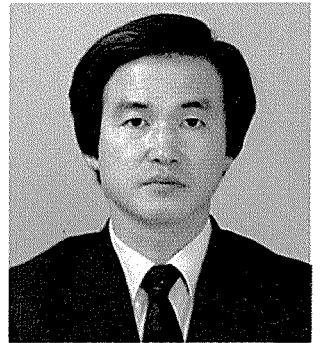
부지회장 박한동



부지회장 김정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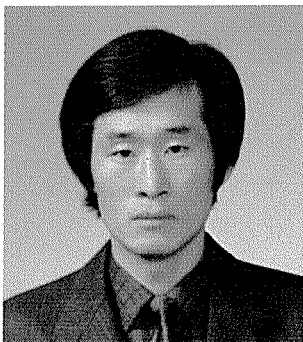
동구지부장 지진식



서구지부장 정춘원



수성구지부장 박동우



북구지부장 손선유